

전북, “식품산업 도약의 전환점 맞았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최종심의 신규 지정·확정 159억 투입 15개 기업 참여

전북자치도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되며 K-푸드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최종심의 결과,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2019년 친환경자동차,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5년 만에 신규 지정된 전북의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그린바이오 기반의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전략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4년 9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실증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9억 원이 투입되며, 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총괄을 맡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두 가지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첫 번째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으로, 11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 자료 확보, 생산기준 설정, 시제품 제작, 기능성 표시 등록까지 수행한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으로, 스마트 GMP 기반 자동화 공정을 갖춘 시설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제조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능성 원료 적용은 현행 규제에 인

해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가 68종 중 29종에 불과해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GMP 시설당 한 기업만 등록 가능해 초기 투자 부담과 위탁생산 어려움, 수출용 제조원 확보의 애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왔으며, 실증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과 푸드테크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식품기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기능성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과 시장진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 제품개발, 34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21일 전북을 찾아 도당·청년층·상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시 효자동 일대 골목골목을 누비며 거리 유세 지원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사진=민주당 전북도당>

전북, 미래차 중심지 도약로드맵 짠다

미래차 부품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차 중심 산업벨트 구축

전북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2025년 말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중심 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2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전북 여건에 맞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기반구축, 기술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3대 분야를 내용으로 수립한다.

먼저 기반구축으로 기존의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새만금 자율운송 인프라’ 및 ‘수소상용차 신뢰·내구 검증센터’,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이들 기관을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킬 예정이다.

둘째, 기술개발 측면에서 전북자치도는 도내 중대형 상용차의 97%를 생산하는 중심지로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고 고효율을 갖춘 친환경 상용차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 지식 허브 대표도서관, ‘첫 삽’

전북자치도의 지식과 문화 중심이 될 ‘대표도서관’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도는 2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0,517㎡)로 조성되며, 약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료실, 전시·홍보 공간, 야외정원 등이 들어선다.

부지면적은 축구장 4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9,400㎡에 달한다.

도는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에 문화와 예술을 더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전북형 도서관 서비스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와 정보의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설계는 세계적 건축가 이은영 교수가 맡았다.

/김영태 기자

이준석 후보측 “친윤, ‘들어와 당 먹어라’ 한다”

한동훈 “친윤, 이재명 아니라 나와 다름…적절해야” 비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간의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대선후보 선대위 이동훈 공보단장이 21일 국회 친윤계가 “당권을 줄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지는 것”이라며 후보직을 양보해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며 “첫째는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고, 둘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

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쥔가와 노심조사한다”며 “오로지 대선 이후 당권이 관심사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며 “책임을 나눌 사람을 찾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단장은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고, 이준석 후보라

면 승산이 있다는 느낌”이라며 “그 느낌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며 “이것이 진짜 내부충질”이라고 친윤들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친윤 구태정치 청산에 앞장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친윤 구태정치 청산 없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친윤 세력 적절 의지를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참여로 지키는 소중한 권리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 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 점검 ‘집중’

농경지·교량 등 점검 김관영 지사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를 위해 21일 완주군 일대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석학천 제방 복구현장과 농경지 유실지역, 용봉교 등 주요 재해위험 지구를 차례로 점검했다.

특히 석학천 일원은 지난 2023년 7월 제방 일부가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현재 제방 확폭과 준설 등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 도지사는 복구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각종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에게 사전 대비에 만

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었던 농경지 복구현장을 찾아 현재 마늘과 양배추 등이 다시 식재된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복구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지난해 호우 시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봉동을 용봉교를 찾아 드론 카메라를 활용한 교량 하부 및 이음새 등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민간 전문가 브리핑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시설물 안전을 철저히 살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 속에서도 완주군은 2년 연속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민대피와 위험지역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할 정도의 준비로 도민이 안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를 위해 21일 완주군 일대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동안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14일~6월13일) 동안 도내 생활밀착형 시설 1,457개

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며,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완전무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안호영 의원, 선거운동 경청투어 강행군

회의원과 도·군의원, 선거운동원들은 골목길까지 찾아가서 유권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으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꼭 실천하겠다는 1대1 맞춤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형 리더였다”며 “저희 선대위도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움직이면서 진심을 전하고 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골목을 누비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완·진·무 선대위 안호영 국

/서울=김영목 기자

장수·순창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 최종 대상지 선정

활력레이스 장수치휴마을 순창행복플러스타운 동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각 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장수군이 신청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총사업비 301억 원)’과 순창군이 신청한 ‘순창행



박희승 의원

복플러스타운(총사업비 255억 원)’ 2건이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다.

장수군이 제시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은 장수읍 중심생활권을 기반으로 ‘체류-거주-정착’의 선순환을 통해 주거 타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치휴(休)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수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장수군은 전국 260개 지자체 중 4번째로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번 사업 선정으로 청년의 도전이 펼쳐지는 기회의 장수군으로 도약할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순창군은 3년간 인구가 증가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및 청년·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대책이 시급한 과제다. 사업을 통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를 포함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 모

범 사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사업이 기쁜 결실을 맺었다. 인구소멸이라는 벼랑 끝 위기 앞에서, 지역의 터전을 굳게 지키고 새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도약의 씨앗을 얻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뿌리내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한준호 선대 위원장 “실용과 합리 보수의 경쟁에 의미 갖자”

이재명 후보 실용주의 지향 강조 “협력 통한 정치 성숙” 약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지향을 설명하며 진보정당에 대한 합리적 실용주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실용과 합리 보수의 경쟁 상대로 대선 의미를 갖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지지율 50% 유

지에 대해 고무적이지만 양당 지지층 결집으로 51대 49가 되는 상황까지 충분히 감안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지역 유권자들과의 협력 통한 정치 성숙”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충남 아산’ 공동 공약 논란에 대해 “두 지역 경쟁으로부터 나온 공약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약을 담기엔 고민이 컸다”고 소릴 줄였다.

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김관영 지사 “중앙부처 설득 막바지 전방위 대응”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다 확보 위한 고삐를 바짝 당겼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단계 2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핵심 중점사업에 대한 부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정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김관영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회의는 2026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현황 총괄보고 시작으로, 실국별 핵심사업에 대한 부처 대응 방안 보고로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국비요구액 총 7,984억원의 부처단계 중점사업 110건을 선정하고 전략회의체 운영 및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는 사업별 쟁점사항과 예상되는 부처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설득 논리 개발과 유관기관 협조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기재부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부처안 반영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핵심 쟁점사업은 지휘부에서 부처방문 등을 통해 예산 반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부처단계는 사실상 1차 예산 확정 단계인 만큼, 중앙부처 대응의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하다”며 “중앙부처를 빈틈없이 설득하기 위한 막바지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부안 청년·시민사회단체, 이재명 지지 선언

전북 지역 청년·시민·사회단체가 21일 전북자치도의회 앞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부안군 청년연합회는 “우리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안 공약으로 부안 RE100 산단 조성,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노을대교 착공과 확장 등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전북발전연합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 망가진 나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이 후보 뿐”이라며 지지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기업 비나텍(주), 美 시장에 공급계약 체결

美 블룸에너지사와 계약 AI센터 전원장비에 기술 탑재도, 마케팅수출바우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소재 기업 비나텍㈜이 21일(수) 블룸에너지(Bloom Energy/미국)와 AI 데이터센터용 슈퍼커패시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윤희태 완주군수, 비나텍 성도경 대표이사, 블룸에너지 사티쉬 치투리(Satish Chitoori)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하여, 전북도와 완주군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이번 계약은 블룸에너지가 체결한 AI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공급 프로젝트의 비상 전원용으로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가 채택되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번 계약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상 규제 강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성사된 사례로, 전북 기업의 기술력과 대응 역량을 입증한 성과로 주목받는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비나텍의 이번 수출 계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 산업 육성과 전북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국내 소재 기업 비나텍㈜이 21일(수) 블룸에너지(Bloom Energy/미국)와 AI 데이터센터용 슈퍼커패시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농진청 개발 기능성 검정콩 ‘소만’, 항산화 효과 탁월

이소플라본 검정콩 2.9배 추출물, 암세포 증식 억제 종자 보급 내년부터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한)은 쌀 수급 안정과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 기능성 콩 품종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 결과 검정콩 품종 ‘소만’에 항산화 물질이 많아 기능성이 월등히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소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안토시아닌 함량은 기존 검정콩 품종인 ‘청자5호’ 등과 같은 수준이나, 재래 검정콩보다는 2.8배 많다.

특히 암 예방 효과가 알려진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은 재래 검정콩 대비 2.9배 많다.

연구진이 동아대학교 이종호 교수팀과 공동으로 ‘소만’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의 실제 효능을 연구한 결과, 암세포 증식과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소만’ 추출물을 뇌종양, 유방암, 피부암 3종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무처리

에 비해 뇌종양 세포 수는 52.2%, 유방암 세포 수는 40.6%, 피부암 세포 수는 58.4% 적었다.

동물실험에서도 ‘소만’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피부암 종양 부피가 무처리보다 72.3% 작고, 무게도 64.7% 적게 나가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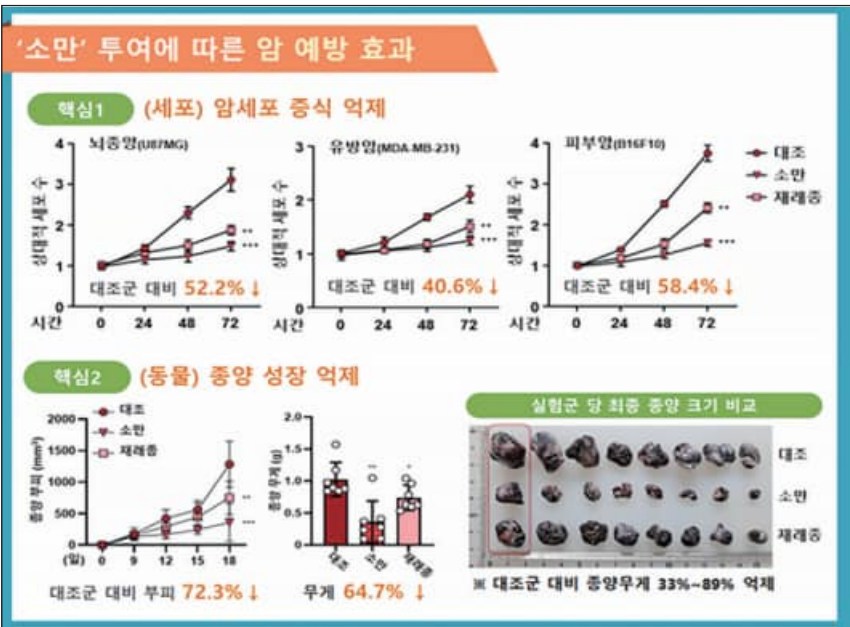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국제 학술지 「안티옥시던츠(Antioxidants)」(IF 6.0)에 게재하고 관련 내용을 특허로 출원했다.

‘소만’은 우수한 기능성 못지않게 수량성과 재배 안정성도 높다.

특히 분자표지(마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육종 기술로 개발돼 난알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내탈립성)을 갖춰 기계수확에 유리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현장 실증 사업을 통해 내년도 산업체 연계 평가에 쓸 원료곡을 대량 확보할 계획이다.

또 농산업체, 의료·건강 기능식품업체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생산한 보급종은 내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보급될



농촌진흥청은 검정콩 품종 ‘소만’의 항산화 물질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의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사진=농촌진흥청>

계획이다.

현재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에서 ‘소만’을 소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광도원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소만’의 기능성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다양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육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콩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산 콩의 새 수요 창출과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인도·네팔 농업공무원, ‘K-스마트농업’ 배워

농어촌공 ADB 연수 첫 시행 인도·네팔 현장 체험 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에 걸쳐 인도와 네팔 농업부 공무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관계 및 농업개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인도와 네팔에서 추진하는 기술지원 사업 ‘스마트 농업 지도-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두 나라 농업 당국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수 기간에는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과 농산물 유통정책,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융수 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스마트팜 기업 등을 방문해 강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

농어촌공사에 직접 위탁해 시행한 첫 사례로, 공사의 교육 기획과 운영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공사는 1976년부터 해외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위탁받은 2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지금까지 865개 과정을 통해 4,890명의 해외 연수생을 배출했다.

공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위탁한 연수 과정을 지

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 농업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신홍섭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과 물관리 시스템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진국의 농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최초 21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05년부터 ‘우수’ 선정 이어져 친절 응대업무처리 높은 평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1355 고객센터가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 결과에서 공공기관 최초 21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48개 산업, 339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태도, 업무처리 등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공단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분야 기관 중 서비스품질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유일한 기관이다.

올해는 친절한 응대 태도와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신청 가능한 디지털 에이알에스(ARS), 청각·언어 장애인에 위한 영상 수어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24시간 챗봇상담 등이다.

특히 작년 7월에 도입된 ‘디지털 에이알에스(ARS)’는 증명서 발급, 가입신고 등 22종의 신고·신청을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1년차 총회 및 세미나 개최

도내 CEO 등 100여명 참석 유홍준 교수 초청 특별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1일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도내지역 중소기업 CEO 등 약 100여 명 등이 참석했으며, 전주 그랜드호텔에서 진행했다.

도내 중소기업체 CEO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북은행 비즈니스 클럽은 2003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21번째 총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회원들 간 친목뿐만 아니라 클럽 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 및 공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 지역 내 최고 명문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즈니스클럽 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홍준 교수를 초청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백종일 은행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전북은행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북은행도 비즈니스클럽 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동반과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기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는 노총 지역본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사진=한국노총 전주시지부>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이재명 지지선언

“윤 정부, 노동 탄압 일삼아 압도적 지지, 전북 자존 회복”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의장 박병철)는 노총 지역본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기조로 회계공시, 타임오프 기화감사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행사, 5인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주 69시간 단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노동개악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

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정당으로 결정하고 대선승리를 위해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의장단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철의장은 “헌정질서를 파란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의 순간에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90% 이상 투표율과 93%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중기청, 녹색성장 지원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정부지원 안내 호남권·영남권·수도권 순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농협파트너스 전북, 김제서 에어컨 세척 봉사활동

지역 마을회관 26곳 대상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지사장 고영훈)는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호)과 함께 2025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김제지역 내 마을회관 26곳을 대상으로 에어컨 세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마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에어컨 내부의 먼지와 곰팡이를 제거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위생적인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고영훈지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진호조합장도 “이번 봉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농협파트너스는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범농협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공급, 보안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장래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또한 전문위생·청소도탈클린, 서비스 기업으로서 전국 각지의 농협과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맞춤 지원한다”

201명대상부모나라언어교육
지원 언어·강사·학생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부 또는 모의 출신국 언어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부모의 나라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90% 이상이었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한 강사가 5월부터 11월까지 학교를 방문해 희망 학생의 수준에 맞춰 언어 학습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60여 명이었던 강사가 80여 명으로 늘었고, 지원 언어도 7개에서 8개(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크메리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학생도 201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 명 늘었으며, 학생별로 20회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은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긍심을 갖고 이중언어 능력을 키워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현직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차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안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전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차기 정부서 본격 추진될까

전·현직 주요 총장·교육감들
민주연구원에 정책 제안 전달

전·현직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차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안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이 정책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정부 수립 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권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울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미국의 UC(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과 유사한 대학 체제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입시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정책 제안을 받으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 정책 제안이 차기 정부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책의 실현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가속화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 후보자 공개 모집

오는 28일까지 접수
공개검정온라인동료평가등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현직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인 사람으로, 지원 희망자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주요 활동 실적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징계의결요구 중인 사람과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주요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는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교육자 소양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직관리역량 △교육철학 및 소통역량 △전북교육 핵심정책 추진역량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누리집을 통한 공개검정과 온라인 동료평가, 내달 10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3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장은 지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우리 교육청의 핵심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철학, 소통과 협치 역량,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이 교육장 공모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성민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장은 지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우리 교육청의 핵심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철학, 소통과 협치 역량,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이 교육장 공모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제2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개최

“수소중심대학 도약 함께하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비전 공유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우석대학교는 21일 전주캠퍼스 대학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당 W-SKY 23에서 ‘제2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1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출범식’과 2부 ‘제8회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대학 30’에 도전장을 내민 우석대학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미래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에 나설 방침이다.

포럼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이흥기 IEC TC 105 의장(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벌30추진본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문성철 완주부군수,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 이원욱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에서 온 수소연료전지 분야 전문가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흥기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박노준 총장의 환영사와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 유희태 완주군수,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 이원욱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제8회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은 해외 및 국내사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포럼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석대학교가 ‘수소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포럼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이흥기 IEC TC 105 의장(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벌30추진본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문성철 완주부군수,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 이원욱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에서 온 수소연료전지 분야 전문가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흥기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박노준 총장의 환영사와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 유희태 완주군수,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 이원욱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제8회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은 해외 및 국내사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포럼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석대학교가 ‘수소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김오수 제44대 검찰총장 초청 특강

국립군산대학교는 교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4시 고촌관 홀(제1학생회관 1층)에서 대학원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국립군산대 대학원이 주관하는 이번 명사 초청 특강은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진로 설계, 인문 소양, 사회 이슈 등과 관련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김오수 대표 변호사(제44대 대검찰청 검찰총장)를 명사로 초청해 ‘중무공 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생생한 현장 중심의 전략적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급변하는 학문과 기술 환경 속에서 단순한 전공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는 융합적 사고력,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한 강의가 될 것이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민 기자



특히 급변하는 학문과 기술 환경 속에서 단순한 전공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는 융합적 사고력,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한 강의가 될 것이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민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주대 학생들과 소통 시간 가져

“대학은 배움의 깊이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하게 되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1일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이 학교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가졌다. 전주대 진로탐색 및 직업 설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강에는 사범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특강은 명사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대표와 서거석 교육감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공감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감이 답변함으로써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민 해소 및 특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주대 학생들은 이날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전북교육의 비전 △AI가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진로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대학 생활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여러분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다.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잡는 힘, 스스로를 믿고 자기 속도대로 가는 인내심,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 수련이 때때로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한명 한명의 찬란한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대학은 배움의 깊이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하게 되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1일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이 학교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가졌다. 전주대 진로탐색 및 직업 설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강에는 사범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특강은 명사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대표와 서거석 교육감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공감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감이 답변함으로써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민 해소 및 특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주대 학생들은 이날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전북교육의 비전 △AI가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진로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대학 생활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여러분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다.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다잡는 힘, 스스로를 믿고 자기 속도대로 가는 인내심,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 수련이 때때로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한명 한명의 찬란한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봄철 나들이 # 안전수칙

#1 안전운전

안전띠 착용 하기
우리가족을 지켜주는 생명벨트

음주운전 금지
한잔만 마셨어도 운전은 안돼요!

졸음운전 금지
졸음이 오면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요

차량점검 하기
장거리 운전 시 미리 차량을 점검해요

혼잡한 곳 피하기
너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해요

질서 지키기
경찰관이나 진행요원의 안내를 잘 따르요

밀지 않기
비밀진 장소나 계단에서 밀지 않도록 해요

우측보행 하기
통로나 계단 이용시 우측으로 이동해요

주변 살피기
사진 찍기 전 위험요소가 없는지 둘러보아요

만남 곳 정하기
일행과 헤어질 경우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요

혼자 두지 않기
아이와 항상 보호자와 동행하고 혼자 두지 않아요

미아가 발생한 경우
행사 주최측에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요



군산시-한국관광공사 '맞손' 5월에는 군산 바다로 떠나자!

군산시가 5월 '바다가는 달'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을 선보이며 '명품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이번 관광 상품들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전국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의 하나로 추진되며 해양관광의 확대를 위해 운영된다.

가장 주목받는 대표 상품은 섬 도보여행의 매력을 경험하는 '말도 바다 걷기 여행(해양트레킹)', K-관광섬과 해상인도교를 둘러보는 'K-관광섬 유람선 투어'로 현재 총 4회에 걸쳐 260여 명의 단체관광객 모집을 완료했다.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섬에왔섬, 섬 찍고페이백까지 ON'도 눈길을 끈다. 5월 한 달간 1박 2일 세미나키지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말도, 명도, 방축도 방문을 인증하면 현금환급(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5월 바다가는 달' 관련 다양한 상품과 혜택은 공식 사이트(<https://seatripmont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솔티마루길 정비 완료 생태탐방로 새 단장

정읍시가 내장산의 대표 생태탐방로인 '솔티마루길'의 정비공사를 마무리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탐방 환경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이달까지 약 두 달간 정비공사를 진행해, 총 연장 269m에 걸쳐 스텝 손된 데크 교체 △합성목재 보강·도색 작업을 완료했다.

정비 이후 솔티마루길은 더욱 안정된 구조와 미관을 갖추게 됐으며, 시민들과 탐방객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의료원과 함께하는 군산시민 건강강좌 큰 호응

군산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군산의료원과 함께하는 군산시민 건강강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강좌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정형외과, 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등 해당 전문의가 다양한 건강관리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강좌 시작하기 전인 10시 30분부터 참석자들을 위한 혈당·콜레스테롤·심방세동·혈압 등 무료 기초 건강검진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오세광 치과과장의 '백세 전략을 위한 치과상식' 강좌가 열리며, 백세 시대에 맞춘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예방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6월 26일에는 전창훈 정형외과 과장의 '요통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강좌가 이어질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누리집 또는 군산의료원 전화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4년 카드 매출액 0.5% 최대 50만 원 지급

군산시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5,920개의 사업체 중 5,400개의 사업체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4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작년보다 20만 원 늘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해 지원 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였다. 4월 이후 신청건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 △타

시·도로 이전 △유형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장 관할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은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장관활성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장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에 답이 있다…민생행복

왕솔밭 공동체정원 등 방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생활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왕솔밭 공동체정원 △칠보물데마 유원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지 △석탄사 요사채 등 주요 생활·문화·복지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생활밀착형 점검을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왕솔밭 공동체정원에서는 "지압길 위치를 운동기구 앞으로 조정하고, 예정지와 무대 앞 공간에는 작은 텃밭을 조성해 시민 건강과 공동체 교류를 동시에 촉진하리"고 지시했다. 또한 "지압길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고, 주민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도 검토하리"고 당부했다.

이어 찾은 칠보물데마 유원지에서는 이용객,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강조하며 "석재 바닥 장식은 모두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정비하리"고 지시하고, "바디슬라이드 아래 바닥은 우레탄



이 시장은 지난 20일 주요 생활·문화·복지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정읍시>

페인트로 색감을 정리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리"고 덧붙였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지에서는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간 설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로를 경계로 앞뒤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해 입체적 공간을 만들고, 기존 감나무는 베지 말고 전지 작업 후 조경수로 활용하리"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석탄사 요사채에서는 "한국금경사지안전협회와 협의회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벌

도 보고하리"고 지시하며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일수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종교시설도 공공안전망 안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적극행정은 단지 규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규정 너머를 고민하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는 '정읍형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본격 장마 대비 각종 재난 선제 대응 총력

도로·주택·건설현장·하천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익산시가 국지성 폭우 등 올여름이 상가후 대비에 나섰다.

시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분야별 핵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사전 예방 중심 대응체계 강화'와 '응급복구 준비' 병행이라는 이중 전략을 세웠다. 건설·하천·도로·주택 등 전 영역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도로분야: 침수방지 시설 강화 및 도로 응급복구 체계 구축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소파 보수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로보수원·가로정비원 중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측구와 교량을 정비하고, 현수막계시대의 고정장태를 점검하는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병행된다.

최근 시는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송학·중앙·삼바레기·하나로 지하차도 4

곳에 20억 원을 투입해 자동 진입차단 시설을 이달 말까지 설치한다. 수위 상승 시 센서가 감지되면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게 된다. 또한 배수로와 배수 펌프를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비상상황에 즉각적인 신속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 주택분야: 침수 취약지 안전 점검 및 물막이판 설치지원

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공 중인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6월 11일부터는 지역 의무 관리 공동주택 151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 주차장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물막이판 설치비용 80%(최대 50만 원)를 지원하고, 장마 전 설치 완료료 목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건설공사: 대형 현장 집중점검 및 인허가 현장 예찰

시는 또 올해 발주하는 216건의 건설공사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절·성토 작업, 도로점용 굴착 등 우기 전 민원 다발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종 사고사

례와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 하천분야: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 시설물 안전진단 병행

하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22개소 주요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정기 점검을 한 차례 완료한 데 더해 92개소 하천에 대한 해빙기·홍수기 전 자체 안전 점검도 추가로 진행했다.

시는 현재 지난해 호우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413억 원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87억 원이 투입되는 기능복원 사업은 40개소, 90건 규모이며 오는 6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326억 원을 투입하는 산복천 개선 복구 사업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비상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인력과 장비를 신속 투입해 응급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현장 중심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양경진 건설국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청소년 100원 버스 7월 도입

어린이에서 청소년까지 확대

익산시가 '100원 버스'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익산시는 기존에 어린이(6~12세)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100원 버스 요금제'를 오는 7월부터 청소년(13~18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100원 버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내버스를 타면 실사용 금액 중 본인 부담금 100원(건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익산시 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어린이가 750원, 청소년 1,250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는 월 3만 원(46회), 청소년은 월 5만 원(43회)까지 '100원 요금'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

전용 교통카드는 6월 2일부터 '행복더하기'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재된 주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로 카드가 배송되며, 편의점 또는 앱을 통한 선결제 후 사용 가능하다.

단, 다른 사·군 버스 이용,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미타고(단말기 미접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제3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출범 본격화

창립 실무이끌 '준비위원회' 구성

정읍시가 지역 산업단지 내 소통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협의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행정-기업 간 소통을 넘어,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내 공동 이슈를 함께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주기업들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20여 개 기업 대표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창립 실무를 이끌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한국국유

지 △하림 △크린앤사이언스 △두성에스비텍 △새한리사이클 △(유)품의기업 △원앤비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의회 정관 마련, 회장단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을 중심으로 연내 정식 발족을 목표로 준비에 착수한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봉사활동이나 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상생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시는 앞으로 제3산단을 시작으로 산업단지별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본격화해 기업 간 협력과 행정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를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지역의 맛 알릴 '익산맛집' 공모

익산시가 지역의 맛을 알릴 대표 음식점을 발굴해 미식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 익산맛집'을 내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익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익산 고유 농특산물을 활용한 익산 대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이

대상이다. 참여 희망 업소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위생과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음식점은 △전문가 컨설팅 및 미식 관련 교육 △홍보물 제작 및 위생용품 제공 △시설·환경 개선 지원 △다이어로움 포인트 추가 적립 △대표 맛집 지정 표지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SNS·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정읍시가 내달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참여해 피켓을 들고 사전투표와 본 투표 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 표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너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

해, 시민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청 공식 누리집과 SNS,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사전투표·본투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거점에 현수막도 설치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4년 연속 우수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도입 등

군산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군산시는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도

입 등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포함하면 4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순항

총사업비 337억 투입
2026년 5월 완공 목표
드론산업 메카 성장 기대

고창군 드론산업의 중추적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상내면 조동리 145번지 일원)’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착공식 이후 현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37억원이 투입되며, 총 면적 8만9660㎡(약2만7000평) 규모로 조성된다.

드론 자격시험, 교육, 비행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활주로와 실기시험장 4면이 함께 조성되며,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 완공 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관리를 맡게 되며, 연간 1,000여명의 교육생과 약 1만 5,000여명의 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드론



<사진=조감도>

관련 산업의 확장성과 연계할 경우, 고창군은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협의체(위원장 김진열)’를 구성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요 사업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가 고창군의 드론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역 할인 가맹점 30개소 모집

생활인구 확대·지역 사회
활력 도모...7월 본격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1일 지역 활력 증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을 본격화함에 따라, 시민증 혜택을 제공할 가맹점 30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는 김제시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김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아 김제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사업이다.

특히, 이 제도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플랫폼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증 발급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증 소지자는 김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음식·숙박·체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차로 가맹점 30개소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집은 21일부터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은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을 통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김제시 관내에 소재하며 일반 영업 중인 요식업, 숙박업, 체험시설 등이며,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시민증 소지자가 혜택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협약한 할인을 또는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협약 체결 시 2년간 가맹점 자격이 유지되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가맹점에 ‘김제시민제도 가맹점’ 인증 현판과 홍보용 스티커를 제공하고, 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통해 가맹점 정보 및 혜택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상감X부안감상’ 개막 첫 주 2천여명 방문

청자박물관, 폐막일까지 무료
이번주 더욱 풍성한 행사 준비

2025년 공예주간이 성황리에 첫 주를 마무리했다. 부안청자박물관을 주 행사장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3일간 약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공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야외 가마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청자를 소성하는 현장은 모든 연령층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이번 행사의 대표 콘텐츠로 떠올랐다.

행사 관계자는 “첫 주의 열기를 바탕으로, 돌아오는 주말에는 더욱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주 금·토·일에도 다채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에



게 인기가 높은 청자 태토 다지기 △실뱃기체험과 청자조각을 직접 발굴해보는 △사금파리 발굴단이 무료로 진행되며 이 밖에도 공예인의 도구와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 △공생공락(共生共樂) 등이 운영된다.

공예주간은 주요 행사장인 부안청자박물관은 오는 25일 폐막일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출시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서
26일부터 판매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오는 26일부터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출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은 먼저 1차에서 유기물 사용, 토양검정, 수질 등을 심사하고, 2차로 농약잔류검사, 병해충관리 등을 심사해 프리미엄 고창수박 생산자를 선별한다.

선발된 생산자는 정식부터 수확까

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포장과 재배를 관리받게 된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 속에 수확된 수박은 비파괴선별기를 통과해 중량은 8kg 이상, 당도는 12브릭스 이상된 수박만 프리미엄 고창수박으로 인정받아 택배용 박스에 동봉해 판매한다.

앞서 고창수박은 지난해 9월20일 지리적표시제 116호로 등록됐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

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박재배농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오던 오랜 숙원사업의 결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리적표시제 프리미엄 고창수박 출시는 고창수박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고창수박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올해 50번째 아기 탄생

고창읍 거주부부 셋째 자녀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읍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축하와 함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출산은 2025년 고창군에서 태어난 50번째 아기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기쁨을 더했다.

주인공은 고창읍에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 자녀로, 생명의 탄생이 주는 경이로움과 희망이 현장을 따뜻하게 물들었다.

고창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꾸러미와 아기옷을 전달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응원했다.

산모는 “셋째 아이를 맞이하는 일이 기쁘면서도 큰 책임감이 따랐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 축하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고창군보건소가 추진하는 출산가정 축하방문은 출산가정의 정서적 지지와 출산 전후 분위기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은 △임신출생축하용품(50만원) △산후조리비(최대 200만원) △출산장려금(최대 2천만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을 돕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 실태 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 실태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내 공장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재정지원 제도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 중이거나 투자 완료 후 사업 이행 기간에 있는 관내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진척도 및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시는 △고용 달성 여부 △중요재산의 양도·대여 △기업소유 구조 및 주업종 변경 △기존 사업장 유지 여부 등 기업의 주요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 이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독려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투자와 고용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상’ 수상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고창군이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년 전북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는 도와 시군에서 추천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실무심사와 도민참여 온라인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및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고창군은 전북 도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립운동가를 직접 발굴하고 서훈 신청까지 추진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부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5층 대회의실, 부안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빈틈없는 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를 다지고 전반적인 조치 능력을 향상하고자 치루지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올해는 전국 336개 기관이 2회차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한다.

1회차 훈련에 나선 부안군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훈련 참여자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실

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지시를 수행하는 훈련에 임했다.

특히 훈련에 함께한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육군 8088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KT 등 다수의 기관·기업·민간단체가 하나 된 움직임을 보이며 훈련의 목표를 극대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재난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상시에 망심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점검을 이뤄가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재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김제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공모 공동대응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진순)과 21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인 김제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마스터플랜 수립 등 협력 업무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협약 체결이 있기자 지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실무진이 10여 차례 만나 공모사업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적정 부지를 모색한 결과, 금구초등학교 주차장 부지를 사업예정지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대상 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해양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운영 실태 점검·애로사항 청취

부안군 해양수산물과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산물 제조·가공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 업체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산식품 생산 및 제조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업체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한 업체는 총 8곳으로 △1일차(16일)에는 △황주농수산 △출포하늘수산 △해농수산·청해수산 △양지식품 △2일차(20일)에는 △봉선장 △피시원 △식도라푸드 등 부안군을 대표하는 우수 수산식품 제조업체들이다.

현장에서는 업체별 주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식 사료비 인상 대응 △포장지 등 시설 장비 지원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환경 개선 방안 △수출 확대 전략 △부안 꽃게 브랜드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성열 부안군 해양수산물과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군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공원관리효율성제고 현장행정 ‘무장애나눔길’ 공모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성산공원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실무 교류를 통해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복지과는 공원관리팀과 녹지휴양팀 간 교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경관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는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사이길 조성, 화사한 이미지의 공원 연출을 위한 장미 등 화훼류 식재, 산책로 주변 안전시설 보완(배수로 안전장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성산공원의 가파른 지형으로 노약자 등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팀은 각자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올해 성산공원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무장애 나눔길’은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약자를 위한 산책로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원용 산림복지과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성산공원이 모두에게 열린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 남계지구, 새뜰마을 ‘최우수’

국토부 주관 추진실적평가 전북서 유일 ‘상’ 등급 43억 투입 생활 인프라 개선

순창군 남계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북도 15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상’ 등급을 받으며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도내 도시 새뜰마을사업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 체계, 주민 참여도, 계획 타당성, 물리적 성과,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남계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순창을 남계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 마을 안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



순창군 남계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전북도 15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상’ 등급을 받았다. <사진=순창군>

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비위생적인 지붕을 개량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마을 곳곳에 분포해 있던 낡고 위험한 담장을 정비하고, 마을 진입로와 주요 통행 공간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 방치됐던 안전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해 공동체 중심 공간을 복원했다.

아울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선진지 견학, 마을 리더 육성 등 지역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활동들도 병행했다.

한편, 이번 ‘상’ 등급 평가는 2025년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며, 이는 순창군이 향후 다양한 도시 재생과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창업단지 ‘박차’

대규모 스마트팜 기본계획 농림부 최종 승인 통보

남원시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지난달 30일 농림부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등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의 6개 주요 사업 중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2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부터 추진 중이며, 이



남원시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지난달 30일 농림부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는 부지면적 18.9ha 및 10.2ha 규모의 온실을 조성해 스마트팜 전문 생산법인 유치 및 재배기술 집약화를 위한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창

업단지의 원활한 부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부지 조성 계획 △기반시설 계획 △단지 이용 및 매각 활성화 계획 △연계 사업 조성 계획 등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중앙부처 방문 국가예산 확보 ‘올인’

기재부 등 전방위 접촉 드론·경찰수원원 집중 건의

남원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에 연이어 중앙부처 방문에 나서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5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를 직접 찾아가 다시 한번 지역 핵심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

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일제 출장과 4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상황 보고회’에 이은 연장선으로, 남원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원시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현안사업의 안정

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남원시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남원 경찰수원원 신축(443억원) 등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첨단 드론스포트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국도 제드론레이싱 경기(DFL) 운영 시스템 구축(43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공공서비스 혁신 AI 역량 강화

정장덕 나주대총장 초청 강연 AI기술 접목 지역경쟁력 강화

완주군이 공공서비스와 미래산업을 위해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21일 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 직원들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AI와 완주군 미래산업’을 주제로 정장덕 나주대 총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열었다.

정 총장은 한국 유비쿼터스 학회 회

장, 정부미래부 및 미래창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교육계와 산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강연에서 정 총장은 AI 기술이 도시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이 AI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군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

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접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핵심 동력으로, 완주군의 미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완주형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발효 관련 교육과정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발효식품 교육과정 ‘호평’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이론·실습 결합 커리큘럼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8일부터 운영 중인 발효 관련 교육과정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민이 순창의 전통 발효식품을 직접 체험하며, 관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전통주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발효식초 △소스 제조 △순창전

통장류제조사 민간자격 과정 등 다양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통주 제조 과정’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론에서는 전통주의 원료, 발효 원리 등을 다루며, 실습에서는 수강생이 직접 술을 담그고 시음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배운다. 완성된 전통주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품평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지원 늘린다

내년 지원 규모·대상·기종 확대 고령화·인력난 해소 도움 위해

완주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2026년 지원사업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고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과 지원기종(관리기, 동력살분무기, 농산물체척기, 농산물건조기, 자동호스틸)은 이전과 비슷하지

만, 지원 규모와 대상 기종의 다양성이 늘어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5종 외에도 농업 현장에서 수요를 반영해 7종의 중소형 농기계로 확대된다. 특히, 관리기와 동력살분무기 외에도 적심기와 동력보행제초기가 포함돼 더욱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월광포차 임창정 공연 ‘역대급 관중’

월광포차 시즌2 첫 무대 포문 상권·문화 융합 남원형 야간관광

남원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월광포차 시즌2’가 국민가수 임창정의 무대로 성황리에 포문을 열었다. 지난 17일 월광포차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역대급 관중 동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남원의 밤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임창정은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라이브 공연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대창과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번 월광포차 시즌2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저렴하고 푸짐한 먹



거리가 특히 인기를 끌었으며 남원 사회계기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돼 지역 특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과 더불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원형 야간관광 콘텐츠’는 6월까지 계속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 ‘자기주도형 환경 지키기’

청소년문화의집 ‘그린버스킹’ 재활용품 활용 작품 제작 전시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 보호 실천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기 주도형 봉사동아리 ‘그린버스킹(Green Busking)’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번 활동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예술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활용해 환경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환경 보호를 통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완주군의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추가 모집 중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민원 전화 자동 녹음 ‘상호존중 서비스 문화 만들기’

남원시가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자동 녹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부터 남원시에 걸려오는 외부 전화 연결 시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통화 연결 후 자동 녹음할 계획이다.

해당 녹음 파일은 ‘남원시 행정전화 녹음 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90일간 보관된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실시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이 상호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혈압 측정의달’ 고혈압 예방 캠페인 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5월을 ‘혈압 측정의 달’로 정하고, 21일 지역 내 재래시장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고혈압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과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과 혈압 관리 교육을 통해 고혈압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윤기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며, 방치할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고혈압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 안전망 구축 강화

완주군이 생명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는 최근 자살 예방 환경조성 및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답사 및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답사는 자살 다빈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시야 확보, 동선 흐름, 구조물 설치 가능 공간,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대책 회의에서는 자살 시도가 빈번한 장소에 대한 통계자료 검토, 자살예방 구조물 형태 및 설치 적합성, 유지관리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남인 센터장은 “지역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자살다빈도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구조물(로고젝터, 표지판, 태양광 구조물 등) 설치, 모니터링 관리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농협익산시지부, 나무심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익산시는 '농협익산시지부'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현옥 농협익산시지부장은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를 빛낸 '2025 모범시민상' 수상자 선정

지역사회 빛낸 공로 30일 시민의 날 시상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 온 전주시민 5명이 '2025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접수된 후보자들의 공적 사실 확인 및 심사 후 평소 활발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타의 모범을 보여온 △이경신(62세, 여) △신정희(67세, 여) △김도영(58세, 여) △이종전(57세, 남) △이민주(49세, 여) 등 5명을 '2025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1



이경신



신정희



김도영



이종전



이민주

일 밝혔다.

'모범시민상'은 시장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며 시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공동체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시민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

다.

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2025 전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모범시민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

해오신 분들의 열정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상"이라며 "전주시를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주 구이노인복지센터, 홀몸 어르신과 함께 봄나들이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 10명을 대상으로 임실 옥정호 부근 카페를 찾아 체험을 진행했다.

평소 외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은 카페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옛 섬진강의 모습을 남겨둔 섬진강림 물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이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가족센터, 몽골서 해외문화봉사 진행

한국문화체험-물품 지원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몽골 하르호링 제2학교와 날라흐 제103학교에서 해외문화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은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220명의 학생에게 학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각 학교에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했으며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체험 활동으로 복주머니 만들기, 한복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복 체험과 함께 진행된 사진 촬영은 광한루를 배경으로 하여 현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봉사에는 전북은행이 문구 선물세트를 지원하며 뜻깊은 행사를 함께 했다.

또한, 하르호링 제2학교 학생들은 실제 유목 생활을 하는 학생의 집(게르)을 방문하여 한국의 매운 라면과 짜장면을 함께 끓이며 한국과 몽골의 문화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계화회관 이화자·최국서 대표, 부안군에 장학금 200만 원 기탁

부안군 행안면에 위치한 백합죽 맛집 계화회관(대표 이화자·최국서)은 지난 20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계화회관은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 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누적 기부액이 2,200여만 원에 이른다.

이화자·최국서 대표는 "장학금을 기부하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낀다"며, "장학금 기부가 내 스스로에 대한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며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진안군, 어르신 위한 '리마인드 웨딩' 행사

진안군 부귀면 중궁마을과 백운면 두원마을에서 지난 17일~18일,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 촬영 행사가 따뜻한 감동 속에 열렸다.

'내 생애 가장 예쁜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진안군마을만들기협의회 시행으로 추진된 '2025 농촌재능나눔 일만단체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별로 10쌍

씩, 총 20쌍의 노부부가 참여해 결혼 당시 미처 남기지 못했던 웨딩 사진을 촬영하며 소중한 추억을 되새겼다.

참가한 어르신 부부들은 전문 사진작가 촬영, 현대식 예복, 꽃장식, 헤어·메이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경험했다. 마을 주민들도 예복 준비, 촬영장 꾸미기 등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고산농협,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개강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20일(화) 고산농협 교육지원부사무실에서 관내 결혼이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교육(네일아트)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주간 운영되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생활과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고 농외소득으로 가계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네일아트 2급 자격증반 과정 직업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연희씨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네일아트를 고산농협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줘서 너무 고맙고 열심히 배워서 꼭 자격증을 취득하여 네일샵을 운영하고 싶다"고 수업 소감을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시 파란나무 유치원 원아들, 탄소 줄이고 사랑 더하다

파란나무 유치원(원장 박민정) 원아들이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을 통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파란나무 유치원이 진행한 '탄소 줄이기 생활실천'의 결실로 이뤄졌다. 아이들은 가정과 유치원에서 △조명 끄기 △우유 팩 분리수거 △물 절약 △걸리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등의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생활비 절감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절약된 비용을 조금씩 모아 나갔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부의 날 맞아 익산에서 열린 특별한 은빛 결혼식

익산시는 부부의 날을 맞아 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택)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70대 노부부를 위한 '은빛 결혼식'이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지인, 지역 주민이 참석해 결혼식을 축하했다.

특히 지역 단체와 기업의 후원이 더해져 감동을 전했다. 익산선화라이온스클럽, 엔젤요양원, 전주 씨앤엘웨딩, 전주 한길이벤트, 조이미용실, 하나은행 익산지점, 북부노인복지관 협력경진위원회 등이 힘을 보탰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 등
필요한 정보수집



금지, 위험구역대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구조요청시,
국가지원번호 활용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 등 준비물 철저히

타박상, 굼힘 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一事一言〉



조희대 씨, 말을 하세요!(1)

유시민
작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 요지를 보겠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여기서 ‘최근 선고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5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다. (편의상 지금부터 직함을 모두 생략하겠다) 조희대가 아주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 그걸 방패 삼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려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져서 두고 오늘은 이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조희대 씨한테 묻는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거론한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당신은 ‘독립하여’라는 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부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대가 실천하면 될 일 아닌가. 질의응답 장소가 국회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내용을 헌법과 법률과 논리의 규칙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이 전부다. 총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연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반박하고 비판하면 된다. 법률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대담을 거절하면 그만이다.

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조희대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왜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겠다고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그마저 거부하는가. 당신은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닌가. 왜 대법원 내규를 모조리 여기면서 그토록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처리했는가? 하급심 소송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7만 쪽 넘는다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을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소송서류를 보지 않고 판결했는가?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을 왜 정하지 않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사건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위반하면서 내란수괴 피고인을 석방한 지귀연을 왜 징계하지 않는가? 그가 내란주요종사자를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몸살통 항응 의학이 불가했는대도 왜 즉각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조희대 씨는 공무원이다. 언론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그러

나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조희대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제11조 제2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복귀족(法服貴族)’이다. ‘법복귀족’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을 지키는 도구로 쓴다. 진실과 정의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법복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연행을 하기에 하는 말이다. 국회가 왜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렀는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를 책무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지귀연 판사는 재판에서 손 떼고 수사 받아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내란죄 심리를 맡고 있는 가운데 신성한 법정에서 벌어진 자신의 ‘의혹 해명’ 발언은 그 자체로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지 판사는 엇그제 열린 내란 재판에 앞서 “나는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지 림살롱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문제는 그 장소와 시점이다.

이 발언이 이뤄진 곳은 공공의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이었으며 청중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그리고 방청인이었다. 이는 명백한 법정 사유화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냉철하게 진행되어야 할 내란죄 재판을, 피고인이 아닌 재판장 본인의 입장 해명 무대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지귀연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향후 감찰과 수사를 통해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명확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노상원 등 국가 최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물들이 연루된 내란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의 중대한 고비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의 중심에 서 있는 판사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해명하며, “중요한 재판 중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자기 변명을 펴는 것은 사실상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판사가 국민을 상대로 “날 공격하면 재판이 흔들

린다”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 판사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방패’ 삼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역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셈이다. 이는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며, 결과적으로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의 불투명성’과 ‘자기보호’를 꾀한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비공개 재판 진행, 구속 후 특혜 논란, 지하통로 출입 등 지 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제적으로 달한 상황에서 이번 해명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신뢰 파산’ 사건이다.

이제 지 판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즉시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서 손을 떼고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감찰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재판은 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혐의를 받는 내란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법의 심판대다. 더 이상 사법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판사라도 법정을 사유화하며, 본인의 사익을 변호하는 전례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야 한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단 1%라도 존재하면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관의 최소한의 태도”라는 원칙이 왜 지귀연 판사에게만 예외인가. 국민은 신뢰를 훼손한 사법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지 판사의 사퇴와 수사 전 환은 정의의 회복이자,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다.

문화재열전



북고사 신증탱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회화, 보살도
-지정일-2000년 11월 17일
-시대-조선시대
-소재지-무주군 무주읍
북고사길 67 (읍내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78-444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무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우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7만 명의 발길이 만든 한옥마을 속 문화공간 전주 ‘하안양옥집’ 개관 1주년

53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안양옥집’이 21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1971년 준공돼 역대 전북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던 이 2층 양옥집은, 2024년 5월 도민에게 개방되며, 전복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윤, 이하 재단)이 하안양옥집을 개방한 이후,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1년간 약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추석 연휴와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일일 평균 1천 명 이상이 찾으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단은 하안양옥집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개관 이후에는 △ 청년 예술작가 기획전시, △ 무형유산 전시, △ 전북 예술관광 수상자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전시가 열렸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강원특별자치도 작가와의 교류 전시도 추진했다.

그중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하안양옥집의 색다른 매력을 더했

구 관사에서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 도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 플랫폼 청년 작가·무형유산 등 다양한 전시

다.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이웃인 전주중앙초등학교 전교생 81명(유치원 포함)이 참여한 기획 전시는 약 2개월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결실로, 아이들은 전주한옥마을의 풍경과 일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생동감 있게 재해석해 작품으로 담아냈다. 특히, 어린이 도슨트가 직접 전시 해설에 나서며, 관람객들에게 한층 더 특별한 감동과 경험을 선사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청년이 떠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완주 화정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한 기획 전시도 진행됐다.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꽃 그림 23점을 전시해, 각 작품마다 담긴 이야기를 관람객과 공유하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처럼 하안양옥집은 도민의 삶과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엮어내는 공간으로서, 도지사가 말한 ‘도민의 품’이라는 상징성을 문화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하안양옥집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해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테라스 콘서트, 아트마켓, 팝업스토어, 마술쇼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도 꾸준히 운영되며 공간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와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하는 팝업 영화관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참



여행 문화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 장애인 및 장애 예술인 전시, △ 전주의 옛 사진전, △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 활용 프로젝트 등 도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기획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하안양옥집은 도지사의 관사를 넘어, 도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의미있는 장소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예술을 경험하고, 도민과 예술가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1)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정혜민 기자

